

Elaine Phillips 박사, 성서 연구 입문, 세션 14, Extracanonial Lit 입문.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세션 14, 정경 외 문헌 및 소개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과 과정 측면에서 다른 단위로 이동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사해 두루마리와 선택한 사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강의는 단순히 서론을 통해 정경 외 문학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계는 무엇입니까? 주요 테마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적하려는 것 중 하나는 일부 학자들이 정경 외 문학이라고 불리는 이 크고 다루기 힘든 범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넣을 수 있는 정해진 기준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몇 가지 범주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범주가 정경 외 문헌에 대해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확실히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두 권으로 구성된 세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James Charlesworth에게 감사의 빛을 지고 있으며, 이것은 몇 가지 수정을 가한 그의 틀과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와 같이 특정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소개를 하고 그 범주 내의 특정 텍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의 초점을 통해 컨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학적 맥락을 연구할 때 했던 많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토라든 선지자든 뭐든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했고, 토지의 지역과 그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적 맥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경 외부에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문학적 맥락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적 종교적 맥락도 존재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곳은 연구하기 위한 방대하고 광대하며 광대한 무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넓은 범위 내에서 일부 선택된 텍스트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첫 번째 성경, 구약 성경 또는 히브리어의 내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는 다양한 텍스트 집합이 될 것입니다. 성경.

그들 모두가 그것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여러 번 다시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맞고, 무엇이 쓰여졌는지 기억해야 한다면 4c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파적인 라벨이 아닙니다. 이제 4개의 c가 있고 모두 인터페이스하므로 c 사이에 별도의 카테고리 라인을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실제로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캐논이군요.

나는 조금 전에 이 공동체들이 우리가 구약성서 또는 제1성서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신성한 텍스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텍스트로 여겼고, 그것이 신성한 텍스트라면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신성하게 게시된 의사소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정경의 구성 요소로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축소판으로 그렸습니다.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지시, 토라, 지혜문학과 시편은 예언문학에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정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정경에 대한 응답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방금 언급한 그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쿤란에 있는 사람들, 즉 특정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이집트의 유대인 공동체와 같은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로, 모두 자신의 렌즈를 통해 캐논에 반응합니다.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땅 내에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디아스포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c, 해설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의 훈계를 위해, 공동체의 교화를 위해, 공동체의 격려를 위해 성서를 적용하면서 정경과 관련하여 이들 공동체가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경, 공동체, 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정경은 우리가 말하는 위치에 따라, 즉 토라나 선지자 등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그 전에 언젠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 이 주석서, 주석서를 쓰는 이 공동체들은 성서에 나타나는 약속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현실 사이의 연결을 확립하고 있었는데, 이는 때로는 유난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편에서 묻는 질문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속이 실패했습니까? 나는 그 시점에서 이미 물어보고 있었고 확실히 일부 커뮤니티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네 가지 c, 카논, 커뮤니티, 논평, 연속성은 모두 여기를 형성하는 힘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검토하고 싶지만, 정경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그룹이 카논에 반응하고 있다면, 카논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특정 시점, 즉 기원전 1세기와 서기 1세기에 정경의 구조와 경계가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정말 늦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보다 오래 전에 우리가 카논을 확립했다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요점입니다. 내가 토라, 선지자, 선지자의 기록과 선지자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역사적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네비임에 관해 다양한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확립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글.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우리가 전도서(Ecclesiastes)라고 불리는 이 책을 가질 때까지는 유대인 공동체의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도서와 혼동하지 말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전도서(Ecclesiasticus)라는 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저자의 손자가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원전 132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일을 한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프롤로그에서 할아버지의 작품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세 번 번역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서, 선지자서, 기타 책을 구별합니다. 즉, 그가 다른 책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범주의 세 부분은 매우 이질적입니다. 시편부터 지혜문학, 역대기,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책을 그는 단순히 다른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 사람의 글과 할아버지의 글을 구별한다. 이제 그의 할아버지는 이 책의 또 다른 제목인 Jesus ben Sirach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마도 기원전 180년경에 글을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손자가 말하길, 이미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토라, 선지자, 그리고 그가 기타라고 부르는 세 번째 범주와는 다릅니다. 서적.

시간이 있었다면 프롤로그를 끝까지 읽어보았을 텐데,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이집트에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기원전 2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미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을 때,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해 본문 4QMT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권위 있고 신성하게 계시된 본문의 세 가지 개별 부분인 모세서, 모세서, 선지자서, 그리고 다윗부터 여러 세대에 이르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어도 기원전 2세기까지 그리고 서기 1세기까지 정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아주 일찍부터 꽤 좋은 감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중역 정경 책들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또 다시 실제 정경의 전도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전도서는 전도서가 될 것입니다. , 벤 시라크의 지혜(Wisdom of Ben Sirach)는 70인역에 있는 이 신정경 책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후기 판이며, 우리의 프롤로그는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글썄, 그건 여담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정경 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에 시간을 할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일종의 식료품 목록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양한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적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적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의 연대 측정에 대한 일부 이해에 따르면 말라기가 기본적으로 구약을 담은 때와 복음서 이야기가 열릴 때 사이에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정보 외에도 우리는 그곳의 철학적, 종교적, 사회학적 분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종류의 외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아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던 그 시기에, 당신은 어떻게, 그 동안 어떻게 충실합니까? 현재의 이 투쟁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히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반복될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배경 외에도 우리는 유대교의 복잡성에 대해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유대교의 복수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획일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두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Jacob Neusner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유대교 라고 부를 것입니다.

유대교를 놓으면 맞춤법 검사가 거슬릴지라도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검사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의 일부인 다른 문제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제 테이크 아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시사점이지만 이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학자라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는 해석의 예, 다시 4가지 c를 통과하는 방법, 주석을 작성하고 적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공동체가 정경을 이해하는 방법, 연속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선택된 본문의 예를 읽고 다른 몇 가지를 탐색해 보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 본문이 절대적으로 주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텍스트를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다면, 아마도 텍스트에서 세 단어 정도는, 그것은 증거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듣고 읽는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전체 맥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에 그들이 말하고 이해한 내용 등을 단순히 주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카테고리에 대한 도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다루기 힘든 컬렉션을 할당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 중 일부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기반으로 한 범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문학의 장르나 하위 장르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장르 중 일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지명된 개인들을 상대할 때, 오늘이 그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정된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Pseudepigrapha.

나는 다음 몇 번의 강의에서 위경에 대해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는 이것이 거짓으로 귀속된 저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들이 잘못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은 우리의 정경 외 문헌 내에서 큰 범주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장르 라벨에서 나아가서, 거짓으로 귀속된 글을 사람 자신에게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Philo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Philo를 발음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날짜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살아계셨던 바로 그 무렵에 글을 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짧은 말로 말했듯이 알렉산드리아 공동체는 헬레니즘 유대인 공동체로서 신플라톤주의의 전체 세계관을 흡수했기 때문에 필론 역시 그것과 융합되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는 히브리어 성경 구절이 있고, 그 성경 구절에는 그의 창조물과 상호 작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썬요,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적 사고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로의 임무 중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야기를 그가 살았던 세계관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가 기능했던 세계관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른 것, 즉 일종의 역사적 인물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우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의 몇 가지 예를 읽어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범주를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그의 우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세푸스는 구약성서의 끝과 신약성서의 시작 사이에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고 싶을 때마다 언급됩니다.

당신이 그의 이력을 알고 있다면 요세푸스는 당신이 볼 수 있듯이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총독 중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1세기 사람이지만 서기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의 반란을 자신의 계략으로 견디고 살아남을 것이며 그에 대해 글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기 위해 로마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길고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글을 쓸 뿐만 아니라 로마 청중에게 일종의 유대교 설명자가 되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쓸 것입니다. 좀 더 초점을 맞춘 유대 전쟁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책 시리즈, 즉 유대인의 고대사라는 제목의 책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유물에서 발췌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파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인터페이스와 이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필로(Philo)와 요세푸스(Josephus)의 몇 가지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해 두루마리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장르인 pseudepigrapha에서 Philo, Josephus(두 장르 모두이지만 개별 작가), 주로 장소와 공동체에 관한 사해 두루마리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사해 두루마리 중 일부가 본질적으로 위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카테고리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강의에서 우리는 때때로 탈무드라고 불리는 몇 가지 랍비 자료를 다루게 되지만 나는 그것을 랍비 자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강의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대담한 얼굴의 것들이 좀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료의 장르는 물론이고 커뮤니티 측면에서도 방대하다. 그리고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인 타르굼(Targums)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화적인 Philo 자료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Josephus 자신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필로는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자신의 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우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을 다시 살펴보자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과일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앞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Philo가 어떤 소리인지 맛보기 위해 927의 일부를 읽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연결을 통해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는 동안 신약성서의 내용과 어떤 가능한 단어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로는 로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특별한 번역은 로고를 이성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역에서 이성을 들을 때마다 로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때때로 로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섹션을 읽기 시작하면서 Philo는 자신의 지적, 영적 통찰력에 대해 흥미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Philo의 섹션 27과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로의 말에 따르면, 나는 또한 내 자신의 영혼에서 좀 더 독창적인 추론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종종 어떤 신성한 영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선하심과 권위라는 두 가지 최고이며 주요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 이 이전 섹션에서 그는 이미 이러한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 또 다른 우화적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른 전체 렌즈 세트를 통해 이 그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최고이자 주요한 힘이 있는데, 바로 선함과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위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둘 사이에 있고 둘을 하나로 묶는 효과가 있는 것은 로고스, 즉 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선하신 분이신 것은 로고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것에 대해 잠시 설명할 테니 저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다스리는 권세와 이 선함이 서로 다른 두 권세라는 것을 그룹들은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로고스, 즉 화염검이 상징이었다. 이성은 빠르고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만물의 창조주의 이성은 만물 이전에 있었고, 모든 것을 지나갔고, 모든 것보다 먼저 잉태되었고, 모든 것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진행하고 개발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 우리 스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아, 너는 이 그룹들 각각의 순수한 인상을 받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다스리는 권위와 그의 선하심에 관하여, 네가 행복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라. 그리고 이 두 가지 힘의 결합.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 뛰고 있습니다. 불타는 검이 이러한 일들 뒤에 행동과 결합된 즉각적이고 불 같은 로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신약성서의 일부 구절과 일부 반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로고, 이성, 그리고 그런데 로고에는 의미론적 함축의 전 범위가 있으므로 그것은 단순한 단어나 단순한 이성이 아닙니다. 대응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그 맥락에서 로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로는 만물보다 먼저, 만물을 통하여, 만물에 의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히브리서 4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꿰뚫고 꿰뚫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칼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필로가 제시하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로고가 있다는 우화입니다.

3 인조 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지만, 물론 신약의 영역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1세기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 우리는 그리스어로 글을 쓰는 저자들에 의해 이 용어가 사용되는 전체적으로 더 넓은 맥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람어에서도 단어와 단어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memra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타나는 memra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memra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람어 번역의 일부에서도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고 신성한 선하심과 인간에게 필요한 것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더 넓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하는 일은 급진적이며 필로와 아마도 나머지 동료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시고 가운데 장막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신성을 육화한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며, 물론 우리는 거기서부터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로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1세기의 더 넓은 철학적 종교적 사고에 대해 약간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자, 요세푸스와 잠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유물이며 유물과 글쓰기 유물입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청중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에 표현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1세기에 이르면 요세푸스 자신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는 몇 가지 종파를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18권 1장입니다.

그런데 18권은 정말 유용한 책입니다. 자, 여기 갑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고유한 세 가지 철학 종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어떤 종파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대 전쟁 제2권에서 말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다루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은 천박하게, 즉 검소하게 생활하며 맛있는 음식과 음식을 경멸합니다.

그들은 이성의 행위를 따른다. 그들은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결정할 때,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질을 만드시는 것, 그러나 인간의 뜻은 선하게 행할 수도 악하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영혼들 안에 불멸의 활력이 있으며 땅 아래에서는 그들이 이생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 보상이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자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전자는 부활하여 다시 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리 때문에 백성의 몸을 크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는 조금 더 말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이것이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명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준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자주 만나는 철학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미덕의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고 때로는 강요에 의해 행정관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제 Essenes에 대해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콤란과 연관되었을 수 있는 종파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에세네파의 교리는 이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장 잘 설명됩니다. 에세네파는 영혼불멸을 가르치고 의의 보상은 간절히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바친 것을 성전에 보낼 때 자기의 정욕이 더 많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순결한 까닭에 그들은 성전의 공동 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스스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 행로가 다른 사람들의 행로보다 나은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남자가 4000명쯤 된다.

그들은 아내와 결혼하지도 않고 하인을 두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인은 사람을 불의하게 유혹하고 전자는 가정 싸움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활하면서 서로를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종파입니다.

요세푸스는 계속해서 그가 네 번째 종파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모두 읽지는 않겠지만 그는 철학의 네 번째 분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점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동의하지만 자유에 대한 불가침의 애착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통치자이자 주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요세푸스의 전쟁을 읽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게 최종적으로 함락되는 것을 묘사할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비극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광신자들인 시카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반감과 잔인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공격만큼이나 그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교의 종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강좌에서 알 수 있듯이 요세푸스도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이제 나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주면서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을 떠나 로마인들에게 넘어가는 유대인 변절자였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친 유대인 학문은 그와 거의 아무 관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상담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교회 안에, 교회의 여러 분파에 의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내용 중 일부는 18권 3장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서기관들이 추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 책이 누군가의 책이라는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함부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경계는 좀 더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 설명에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추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들을 꺼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세푸스가 기적을 행하는 비범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부르는 대로 기독교 부족 전체가 뒤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 저자도 전체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족 발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시니 만일 사람이라 일컬음이 옳으니 그는 기사를 행하는 자요 진리를 기쁘게 받는 자들의 선생이니라 그는 많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을 그에게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들이 아마도 교회가 그것을 추가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우리 중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 그를 정죄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다음 줄은 아마도 추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일과 그에 관한 다른 놀라운 일들을 예언한 대로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비록 그것이 보간법이라 할지라도, 이미 언급된 모든 것을 주목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그리스도인 부족은 오늘날까지 멸종되지 않았습니니다. 자, 요세푸스, 우리는 그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세푸스가 말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이 시점 이후에 곧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에 대한 요약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18권 5장입니다.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주지 않을 첫 번째 부분을 전쟁과 다툼, 헤롯을 묘사하는 데 썼습니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사람이고 여기에도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 있을 것이고 아레다라는 왕이 있고 거기에는 아내가 있는데 전투가 몇 번 있었습니니다. 5장의 섹션 1을 마무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레타스와 그의 갱단, 그리고 유대인들이 양쪽에서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준비했습니니다.

그들은 자기 대신에 장군들을 보내어 싸우게 하였는데, 그들이 전투에 참가하자 헤롯의 군대는 모두 멸절되었습니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2절, 어떤

유대인들은 헤롯 군대를 멸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로 생각하니 헤롯이 세레자라 하는 요한에게 행한 일에 대한 형벌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니 이는 헤롯이 세레 요한을 죽였음이니라 선한 사람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 덕을 행하여 서로에 대한 참된 의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행하고 세례를 받으라 명하였느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고 기뻐하여 그 주위에 모여들자 헤롯은 요한이 백성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이 자기 손에 들어가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헤롯은 그를 죽여 그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해악을 막고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너무 늦었을 일을 회개하게 할 사람을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거기에 하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은 헤롯의 의심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마케루스에게 포로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헤롯 대왕의 수많은 요새 중 하나인 사해 동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루스(Machaerus)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내가 말했듯이 그의 군대의 멸망이 헤롯에 대한 형벌이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로 보내졌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레 요한과 관련하여 요세푸스가 실제로 추가한 매우 흥미로운 일련의 세부 사항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서 헤롯 왕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헤롯 왕조는 방금 언급한 그 요새의 건축을 모두 맡은 헤롯 대왕이 될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 헤롯 대왕, 안타깝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뒤를 이어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가 나올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의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 헤롯 아그리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자, 여기 갑니다. 아그리파가 온 유대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바닷가의 가이사랴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라토스 탑이라고 불렸으며, 그곳에서

카이사르를 기리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가 소식을 듣자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는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그 자체로 위엄이 있었습니다.

공연 둘째 날 헤롯은 순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의상이 참으로 훌륭하고 극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이사랴에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헬레니즘 도시입니다.

그가 아침 일찍 왔을 때, 그의 옷의 은빛이 태양 광선의 신선한 반사에 의해 빛을 받아 놀라울 정도로 빛나고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퍼뜨릴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를. 그리고 곧 그를 아침하는 자들이 여기 저기에서, 저 곳에서 그가 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왕은 그들을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불경건한 아침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의 배에 심한 고통이 생기고 가장 격렬하게 시작되니라.

그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즉시 이 세상을 떠나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글썄요, 섭리는 당신이 방금 나에게 한 거짓말을 책망합니다. 당신 곁에서 불멸의 존재라고 불렀던 나는 즉시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요세푸스의 놀라운 묘사입니다. 같은 사건이 그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이들 공동체와 특정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권위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권위 있는 표준 텍스트를 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Philo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적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할 것입니까? 우리는 신약성서의 일부 발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을 언급했는데, Philo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창도 제공합니다. 아주 작은 창이죠. 그리고 물론, 만약 여러분이 큰 책인 필로의 이 멋진 페이지들을 모두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적 사고의 렌즈를 통해 사물을 해석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정교한 방식에 대한 정말 좋은 감각입니다. 글썬,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다음 항목인 에녹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 인물인 에녹의 작품인 에녹입니다.

Pseudepigrapha 입니다. 에녹 자체가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세션 14, 정경 외 문헌 및 소개입니다.